

기후변화·감염병 위기·저성장과 양극화 등 극복 비전 제시

이재명 오늘 신년 기자회견
정책 행보 본격화...주1회 발표
전국민 방역 지원·보상 필요
내일 광주DJ센터서 비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행보를 본격화 한다. 이 후보는 회견에서 기후변화와 감염병 위기,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대위 권력기 대변인은 3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기아치는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의 희망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장소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대전환기의 경제 성장 방향과 이를 위한 국가의 대대적 투자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쇄신 메시지와 함께 정책의 저작권을 따지지 않고 능력 위주 인재를 선발해

실용·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메시지도 회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후보는 '위기 극복과 희망'이라는 화두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후 각론 격의 구체적 정책은 속도감 있게 연쇄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화두를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다. 당장 오는 6일 별도의 정책 공약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한 주에 1번 이상의 정책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6일에는 기존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리고 묶는 식으로 '메가 공약'을 내놓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정책도 준비 중이지만, 발표는 내주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도심 재개발 용적률 등 규제 완화와 공급 부지 확대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격차로 앞선다는 결과가 어이저는 가운데 이 후보측은 정책 선거를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골든크로스가 이뤄졌다고 보고 구도가 바뀔 만큼 이제 이러한 흐름에 왜기를 바꿨다는 것이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여론조사에서 앞선다고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내부를 단속하는 모습이다. 약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윤 후보가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앞섰던 것을 기억하면, 돌발 변수에 따라 다시 흐름이 출렁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지금의 여론조사는 윤 후보가 실점해서 나온 결과이고, 이 후보가 국민께 믿음을 드러야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며 "태도의 문제도 중요한데, 지지율이 조금 앞선다고 자만한 모습을 보이다가는 태도 때문에 정책 비전과 실천 능력 등이 가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3일 "방역 행정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을 통해 모두의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 지원·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의도 증권거래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에 따라 급한 대를 우선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라며 전 국민 지금은 "추경 규모 및 정부, 야당과의 조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NFT", 이른바 대체불가 토큰과 관련해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변조, 조작, 복제가 불가능한 디지털 기념품 같은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산업의 한 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는 5일 광주DJ센터서 비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날 연 전 민주당 대

민주, '이재명표 대사전' 탈당자 일괄 복당 허용

보름간 복당 신청 접수

더불어민주당은 3일부터 17일까지 보름간 과거 탈당자들의 복당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대사전'을 언급하며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탈당자에 대한 일괄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사전' 방침에 따른 대규모 복당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데 이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이날 중순께 사실상 여권 대통합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민주당 사무처 등에 따르면 복당 신청은 온라인 대신 당사 방문, 혹은 우편 접수로 진행할 방침이다. 복당 신청자의 경우 입당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일종의 '대선 기여 계획'을 함께 적어내도록 했다. 해당 계획서는 추후 이들이 공천을 신청할 때 받게 되는 '페널티(불이익)'를 줄여주는 심사 근거로 활용될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대통합' 차원의 일괄 복당 신청을 받고, 추후 대선 기여도를 따져 공천 심사 때 받게 되는 페널티를 차

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별도 입당식을 통해 천정배·최경환·유성엽 전 의원 등 호남계 비문 인사 12명을 복당시키기도 했다. 기초위원 등 지역 단위의 비문 성향 인사들의 대규모 복당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사전' 기간 복당 인원은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민주당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당자 대상 일부 지역은 경쟁 후보가 나올 수 있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따른 기존 세력의 거센 반발 등 진통도 예상된다. 지도부가 감소 규정을 대선 기여도에 따라 달리 정하겠다는 기존 세력 달래기를 시도 중이지만, 내부 잡음은 여전히 있다. 당장 이날 열린 권리당원 개시판에서부터 복당 인사를 향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3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결의대회를 열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던 90% 이상의 땀물 뭉친 득표로 이재명 후보를 95%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키자'고 다짐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김종인 "尹, 선대위가 해준대로 연기 해달라...실수 막으려는 것"

"내가 선거 때까지 비서실장 노릇" 국힘 선대위 지도부 총사퇴 의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가 3일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선대위는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세 시대준비위원장까지 모두가 후보에게 일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다만 윤석열 후보의 사의 표명 수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대위 전면 개편을 시사했다. 이어 김기

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도 이날 오후의 원총회에서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윤석열 후보에게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을 겪어보니 도저히 이렇게 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후보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演技)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윤 후보의 발언 논란 등과 맞물려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이어지자, 김 위원장의 직접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윤 후보의 메시지와 연설문

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고 발언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대선을 경험했지만,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할 것 같으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후보가 자기 의견이 있다고 해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연기만 하면 아바타 아닌가, 유약한 이미지가 되지 않나"라는 지적에 대해 "윤 후보는 정치란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후보의 말실수를 바로 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95% 이상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민주당 전남도의원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3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결의대회를 열고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던 90% 이상의 땀물 뭉친 득표로 이재명 후보를 95%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키자'고 다짐했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2022 대선 승리를 위한 전남도의원 이재명 후보지지 결의대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 승리를 위해 당 소속 도의원들이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과 도의회 김한중 의장, 이광일 원내대표, 전경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의원 52명과 무소속 김희동, 이혁제, 임

용수 도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치열했던 경선 과정을 마무리하고 원팀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팀으로 대선 승리 ▲헌신적인 선거운동 다짐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공약 홍보에 앞장설 것 등 3개 항을 결의했다. 이광일(여수1) 전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회사에서 "일찍이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 시무 국가'라며, 호남이 없었더라면 조선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시 한번 호남인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다"며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던 90% 이상의 땀물 뭉친 득표로 이재명 후보를 95%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남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